

마지막으로 진실로 말하노니
이성 타락한 자들아,
회개하여라

작성일 : 2013. 5. 3(금) AM 4:00
작성자 : 주청해

(이틀 쯤 몸살과 체해서 온 복통으로 앓느라 힘들었습니다. 그러나 주님께서 선생님의 모습으로 24시간 함께해 주셔서 자꾸 힘이 났습니다. 자기 전 기도를 시작하자, 복통이 다시 심하게 왔습니다.

이기고 계속 기도하려는데, 문득 2009년도에 똑같이 심한 복통이 왔을 때, 주님께서 자고 있는 저를 울며 깨우시고, 이른 새벽부터 교회로 부르셨던 사연이 생각났습니다.

그 당시 섭리사는 천국성령운동이 막 시작되어 한참 회개의 불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. 그때 주님께서도 아파서 단상 앞에 거의 쓰러지다시피 엎드려 기도하는 제게 너무나 괴로운 얼굴로

“네가 너무 메스껍고 아파서

차라리 토하고 싶지만,

토하는 게 더 고통스러우니 못 토하잖아.

그와 같이 내가 이성 타락한 자들,

이 섭리사에서 토해 버리고 싶지만,

내가 사랑으로 길렀고 여전히 사랑하는 고로,

그들을 토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워

회개하길 기다리며 품고 있다.

성자와 선생, 너,

이렇게 세 겹줄로

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.

절대, 이성 죄는 분체에게 고해야 한다.

죄 지은 자신 또한

탕감 기간 가져야 한다.

네가 아픈 것, 고통스러운 것,

내 고통의 극히 일부도 안 된다.

나 좀 위로해 다오.”

하셨습니다.

제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통해 깨달을 것이 있다면 꼭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하니, 주님께서 나지막이 이야기하셨습니다.)

* 성자 주님의 말씀 *

보아라, 신부야.

내가, 나의 분체가,

이 섭리사가 이성 타락하여,

썩은 냄새가 진동을 할 정도로

죄의 상처가 끓아 터져 가는데도

회개치 않는 자들로 인하여

이와 같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다고

꼭 좀 전해 주어라.

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이기에

토하지 않고 내뱉어 버리지 않고,

품고 이렇게나 아파하고 있다.

말씀 주어 회개하길

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단 말이다.

그들이 제대로 회개할 수 있도록,

나 성자와 내 분체의 몸의 되어 외쳐 주어라.

내가 너무나 아프다.

휴거되기 위해서는

진정 회개해야 한다.

휴거가 무엇이나.

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.

사랑하는 자를 만나는 것이다.

다 회개하여 깨끗케 하고

날 만나러 오라.

사랑하는 나의 신부여,

너로 인해 썩어 들어가는

내 분체의 고통과 섭리사를 생각하라.

너는 내 지체이며 섭리사의 지체라.

어찌 손가락 한 부분 다쳤다고 해서

뇌가 그 아픔을 느낄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느냐.

아주 작은 상처라도

치료받지 못해 잘못되면 크게 굼뚱,

너로 인해 굼은 상처가

섭리사를 고통스럽게 하는구나.

(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기도하는데 복통이 심해졌습니다. 너무 아파서 기도가 힘들어졌고, 간신히 주님과 선생님을 부르며 기도를 이어갔습니다.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.)

너는 이 같이

기도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지만,

아직도 너희를 살리기 위해

갖은 고통을 다 떠맡아 몸부림치는

선생을 기억하라.

2009년도,
내가 선생 보고 잠깐 한 걸음 물러나라 하고,
예수라는 이름으로 앞서
성령의 역사를 진행했을 때와
지금의 다른 점이 무어냐.
나는 그 때,
네 선생과 그 몸 된 조은 부흥강사,
그리고 절대 선생 조건으로 탄생시킨
게시자들을 통해
‘회개하라, 회개하라,
천국을 보라, 그 문이 열리었다.’
그리도 외쳤다.
그때부터 진실로 회개하며
나 따라온 자들과
이후에 전도되어
지금 현재 말씀의 진행대로
잘 따라온 자들은
그 차원이 2009년도와는
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
높아진 것이 사실이다.

그러나 변함없는 사실 두 가지가 있으니
첫째는, 아직도 그 원수 같은 이성 죄를
제대로 회개치 않아, 섭리사와 선생 심정
다 썩어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과
둘째는, 내 분체의 십자가가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이
다.

2013년 독립의 해라고,
이제부터 자기 죄는
자기가 십자가 지고 가야 한다고,
내 분체의 고통이
줄었을 거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은
제발이나 갖다 버려라.
영 휴거를 현실로 이루고 있는 이 때,
사탄들이 눈이 뒤집혀 발악을 하며
너희를 치고 또 치는 이때,
시대 사명자로서
세상을 구원하러 온 이의 손과 발은
닿고 또 닿았으며,
그 심정은 애가 타다 못해 용광로처럼 타올라
철철 피눈물 되어 기도로 넘쳐흐르며,
그의 등에 지어진 세상 죄의 십자가는
이루 말할 수 없이

무겁고 또 무겁도다.

사랑하는 자여,
애지중지 길러 보석같이 귀하게,
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
어여뻐 여기며 키워 놓았거늘,
다 커서 딴 남자에게
몸 팔고, 타락하는 신부를 보며
그간 땀과 눈물로 수고하며 기른 자의 마음이
어떠할지 생각해 보았느냐.
억장이 무너진다.

사랑하는 자들의 이성 타락을 알게 되었던 날,
네 선생은 그 쓸쓸하고 차가운 곳에서,
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그 곳에서
홀로 무언으로
땅을 치며 소리 죽여 심정으로
통곡에 통곡을 하였다.
그 치가 떨리는 배신감과
나에게 죄송함과
처참히 밝힌 꽃잎처럼 볼품없어져 버린
자신의 사랑덩이들을 쥐고
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다.
속속들이 죄가 드러나며 밝혀지고 있는 이 때,
너희 선생의 애타는 통곡 소리가
온 영계에 울려 퍼지누나.

그 외로운 곳에서
네 선생을 더 이상 외롭게 하지 말아라.

너희 죄로 인해
멸절한 내 신부 거기 가두고
좋다고 계란 던지며
죄인이라 비웃는 격이다.
제발 그만하여라.
네 입으로 회개하여라. 고하라.
죄를 사해 줄 권세를 가진 자를 진실로 깨닫고,
진심으로 그에게 네 묶인 사슬을 내려놓아라.
스스로 고하는 조건이 크다.

사랑아,
마지막으로 회개하라 외친다.
이미 네 옆의 많은 형제자매들은
휴거를 이루고 나 만나고 있다.

너 속히 회개하여라.

지도자, 특히 목회자들은 들으라.
매일 24시간 언제나 어디서나
신령한 기도와 강철 같은 말씀으로,
독수리 같은 선생의 눈이 되어
교회 전체를 빠짐없이 살피며
끝없이 교육하고,
빠짐없이 한 명, 한 명을
세밀히 관리해야 한다.
너희 먼저 휴거 이루어
선생을 도와라.
죄가 있는 자는 회개하고,
사명 비롯하여
내려놓을 것 어서 내려놓고,
죄 없는 깨끗한 자들에게 맡기고
가벼워진 몸으로
탕감 받으며 회복하라.

휴거 된 자들, 탈 없는 몸부림으로
휴거 이루어 가고 있는 자들은
선생 위해 꼭꼭 기도하며
이 섭리사에 아직도
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
선생 대신 직접 움직이며
땀투성이 되어 뛰고 달리는
부흥강사와
그가 목회하는
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.
표상을 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.
그리고 표상이 무너지면
전체에 금이 간다는 것 기억하라.
제발이나 제발이나 각자의 회개 기도와
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가
제대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.
매일매일 말이다.

(기도할수록 복통이 계속 심해지고 있었는데, 주님께
서
여기까지 말씀하시고는 제게 이야기하시길,
“너 조금이라도
나와 내 분체 고통 느껴 심정 알라고
그냥 두었었다.
이제 안 아플 거야. 걱정 마라.”하셨습니다.

그리고는 정말, 언제 그랬냐는 듯,
복통이 싹 사라지고 이후로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.
새벽예배 이후 말씀을 정리할 때, 주님께서 조금 더
이야기 해 주셨습니다.)

선생이 매일 울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라.
이성 죄는 절대로 분체에게
진실로 고해야 사라진다.
그밖에 네 죄를 사할 권세 있는 자는
이 땅 가운데 없다.
나는 분체이니
절대로 분체 통해 역사함을 잊지 말라.
분체와는
네 원래의 분체인 영으로 통하고,
너는 영의 분체인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,
반드시 내 분체와 통하여
분체에게 와야 해결된다.

기억하라.
그리고 회개하라.
영 휴거를 앞두고
마지막으로 피눈물 뿌리며 외친다.
이성 타락한 자들아,
그리고 각종 원수, 사탄 마귀의
사상 받아 행한 죄 지은 자들아,
회개하라.
천국으로의 영원한 영 휴거가
네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.
너 영 휴거되지 못하여
영원히 버려질까 하노라.
오직 사랑하니
이같이 무섭게 말한다.
회개하라.
죄 있지만
여전히 사랑하는 내 신부여,
회개하라.
내가 분체를 통해
확실하게 용서해 주리라.
사랑의 주, 성자이다. 살롬.